

## 중학 내신 대비 필수? 기출문제 100% 활용법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학급 단체 채팅방에 지난해 기출문제가 공유된다. 자습서나 문제집만으로는 불안한 많은 학생들이 기출문제가 게시된 사이트를 뒤적거린다. 하지만 막상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문제들이 진짜 우리 학교 시험에 도움이 될까? 문제를 어떻게 활용해야 점수가 높아질까?'하는 의문이 든다. 다양한 기출문제 사이트와 기출문제 학습법을 소개한다.

취재 오혜진 리포터 ohj@naeil.com 도움말 박신정 교사(인천 안남중학교)

### 기출문제, 학습 보완 도구로 활용해야

학생들이 기출문제를 찾는 이유는 제각각이다. '지금 실력으로 시험을 보면 몇 점쯤 나올지' 가늠하려고, 또는 '작년에 나온 문제가 올해도 비슷하게 나올 것'이라 기대하며 기출문제를 찾는다. 하지만 정작 왜 기출문제를 봐야 하는지, 그 의미와 활용법을 제대로 아는 경우는 드물다.

인천 안남중 박신정 교사는 "시험 문제는 교과서의 본문, 예제, 연습 문제, 수행 과제를 중심으로 출제한다. 수업 시간에 강조한 유인물이 사실상 '출제 예고' 역할을 한다"라고 말한다.

교사 출제 시 참고 1순위는 교과서와 지도서, 2순위는 수업 중 배부한 유인물이다. 3순위인 전년

도 학교 기출문제는 문제를 그대로 다시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복을 방지하고 난도를 조절하며 출제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기출문제는 교과서와 수업을 복습하고 보완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박 교사는 "기출문제는 과거의 출제 경향을 보여준다. 매해 시험 문제는 달라져도 교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은 반복된다. 다만 시중 문제집이나 사이트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일은 없다.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암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출제자가 어떤 개념을 중요하게 다루는지 파악하며 학습하면 된다"라고 설명한다.

같은 맥락에서 재학 중인 학교와는 출제 경향이 다른 타 학교 기출문제를 무분별하게 푸는 것은 되려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 박 교사는 “타 학교 기출 100문제보다 우리 학교 최근 2~3개년 기출 문제가 훨씬 더 가치 있다. 또 타 학교 기출문제는 오류가 정정되지 않았거나, 오래된 문제의 경우 현 교육과정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한다.

무엇보다 시험 출제자는 결국 학생을 매일 가르치는 교사임을 잊어서 안 된다. 박 교사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학교가 제공한 자료를 충분히 학습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정직한 내신 대비법이다. 이 기초를 탄탄히 다져야 기출문제로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다”라고 강조한다.

## 주요 기출문제 사이트

### ① 족보닷컴 [www.zocbo.com](http://www.zocbo.com)

전국 4천여 개 학교의 시험지와 단원별 자료를 수집·분석해 제공하는 대규모 내신 대비 플랫폼이다. 실제 이용자 수가 많고 학교별·출판사별 기출 자료가 다양해 활용 빈도가 높다. 학교별 기출 외에도 단원별, 유형별, 난도별 콘텐츠가 잘 구성되어 있다.

개념이 부족할 때는 단원별 개념 정리와 암기 노트를 활용하고, ‘최다 빈출 문제로 유형을 익힌 다음 ‘최다 오답’으로 약점을 점검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또한 강남 3구의 출제 유형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 상위권 난도를 경험해보기에도 유용하다.

시험 직전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전년 기출문제

와 함께 시험 범위를 설정해 만드는 ‘기출 예상 문제’를 실전처럼 풀어보며 최종 점검해도 좋다. 다만 설정한 학년의 문제만 볼 수 있으므로 중학생이 고교 내신 문제를 살펴보고 싶다면 추가 결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자.

### ② 내신코치 [www.nscoach.com](http://www.nscoach.com)

중·고등학생을 위한 통합 내신 기출문제 사이트로, 유료 이용권 구매 시 다운로드 횟수 제한 없이 자료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전 과목 자료를 단원별, 유형별로 모아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핵심 정리’ ‘적중 문제’ ‘심화 서술형’ ‘파이널 모의’ 등 기능이 다양해 개념 학습부터 고난도 문항 대비까지 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다.

내신 변별력을 가르치는 고난도 문제에 대비하고 싶다면 ‘심화 서술형’ 문제를 풀어보길 추천한다. 무제한 다운로드의 장점을 활용해 기출 변형 문제를 대량으로 확보해 집중적으로 훈련해도 좋다. 사이트에서 단원별 ‘핵심 정리’ 자료를 출력해 개념서처럼 활용하면, 문제 풀이 전후로 구멍 난 개념을 점검하는 데 유용하다.

### ③ 기출비 [cafe.naver.com/michiexam](http://cafe.naver.com/michiexam)

네이버 카페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100% 무료 자료 공유 플랫폼이다. 회원 간의 자발적인 자료 공유로 모인 전국 중·고등학교의 기출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이트 내 자료는 카페 ‘등업’ 조건을 충족해야 다운로드 가능하다.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학년별 자료 공유방’ ‘특목·자사고 대비방’ ‘선배 조언방’ 등 다양한 학습 보조 콘텐츠와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선배들의 조언방을 통해 인강이나 도서 추천을 받거나, 집중이 잘되지 않을 때 친구들의 공부법을 참고

해 학습 동기를 얻을 수도 있다. 필요한 자료가 있을 때 게시판에 요청해보는 등 커뮤니티를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 자신이 만든 학습 자료를 공유하며 학습 노하우를 쌓는 것도 좋은 활용법이다.

#### ④ 이그잼포유 [www.exam4you.com](http://www.exam4you.com)

영어 과목에 특화된 내신 대비 플랫폼이다. 교과서 본문을 기반으로 한 '본문 워크북(7단계)'은 서술형 대비에 특히 효과적이다. 문장의 일부를 비워 직접 써보는 빈칸 채우기부터 해석·동사형 선택·어법 선택·어색한 문장 찾기·순서 배열·영작까지 단계별로 구성돼 있어 문장 구조와 어법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다. 각 문항에는 출제 의도와 문법·표현 해설이 함께 제공돼, 문장 구성 원리와 쓰기 감각을 기르기에 좋다.

학교별 기출문제가 별도로 제공되지는 않지만, 출판사별 실제 학교 내신 문제를 바탕으로 구성된 '내신 기출 FINAL' 자료가 존재한다. 이를 통해 학

습한 내용을 실전형 문제로 점검할 수 있다. PC에 저장할 필요 없이 원하는 자료만 모아서 한 권의 문제집으로 제작할 수 있는 '바로 재본 서비스'도 유용하다.

#### ⑤ 기출로 [www.gichulro.com](http://www.gichulro.com)

회원가입만 하면 전 과목 자료를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100% 무료 플랫폼이다. 실제 학교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출판사별, 단원별 자료를 모아 보기 편리하다. '최다 오답 문제' 코너로 많은 학생이 어려워하는 유형을 집중적으로 복습하거나, 강남·서초 등 교육특구 학교의 기출문제를 통해 고난도 문제에 익숙해지도록 훈련할 수 있다. 시험 직전 '10분의 기적' 요약 노트(벼락치기용 핵심 개념 정리)를 활용하면 암기 과목에서 놓치기 쉬운 개념을 빠르게 점검할 수 있다. 무엇보다 비용 부담 없이 다양한 학교의 내신 자료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 학생들의 기출문제 활용법



**신태웅**  
경기 일산양일중  
3학년

**유사 기출문제로 실전 감각 높여요**  
“기출문제 사이트 중에서도 족보닷컴을 주로 활용해요. 교과서랑 학교 프린트로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 '최다 빈출 문제'와 '최다 오답 문제'를 중심으로 풀어요. 수학은 강남구 기출문제를 활용해 난도 높은 문제에 적응하고, 역사는 시대 흐름이 잘 잡히지 않을 때 EBS나 '빡공시대' 영상을 참고해요. 시험 직전에는 학교의 최근 기출문제와 유사 문제를 함께 풀어 오답이 생기는지 확인하죠. 이 과정을 거쳐야만 시험 준비를 다 마친 것 같아 실제 시험에서 덜 긴장해요.”



**박규리**  
서울 개포중 3학년

**기출문제, 양보다 분석 중요해**  
“저는 기출문제를 그냥 풀기보다,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를 보려고 해요. 처음엔 내신코치에서 단원별로 개념을 정리하고, 족보닷컴에서 비슷한 단원의 기출문제를 찾아 풀어요. 정답만 맞는 게 아니라 문제마다 어떤 개념에서 나왔는지를 표시해두면,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훨씬 기억이 잘 나요. 틀린 문제는 따로 오답 노트를 정리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라, 어떤 개념을 헛갈렸는지 교과서에 단권화해서 적어둬요. 시험 직전엔 우리 학교랑 비슷한 문제만 모아서 시간을 재고 풀어보죠. 결국 중요한 건 이 과정을 통해 내 약점을 제대로 찾고 보완하는 것이에요.” @